



# 트리피드의 날

(The Day of the Triffids)

존 원담 (John Wyndham)

徐光云 訳  
(한국 SF작가클럽회장)

그것은 流星雨가 원인이었다. 어느날 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녹색섬광이 온 하늘을 물들여 전세계의 사람들은 앞을 다뤄가며 밤새 하늘 구경을 즐겼다.

이로 말미암아 뜻밖의 災厄이 휩쓸기 시작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유성우를 구경한 사람들은 모조리 이튿날 아침 視力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전 인류가 장님이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이 혼란에 박차를 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트리피드가 출현한 것이다. 몇해전 냉전이 계속되고 있을 때 소련이 식용유로 활용하려고 은밀히 생산하고 있던 신종의 식물-트리피드 종자가 비행기 사고로 전세계에 흩날리는 사태를 빚어내고 말았다.

보통식물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트리피드는 키가 7피트가 넘는 肉食식물이며 약간의 지각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세발로 걸어다니는 괴물이었다.

트리피드는 사발모양의 입에서 뱀어나온 끈나불 비슷한 촉수에 사람을 죽일만한 毒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트리피드가 발아하여 한동안 인도차이나, 남미, 유럽 등지에 나타나서 패닉소

동을 벌인 적도 있었다.

그 때는 트리피드의 촉수를 잘라냄으로써 소동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식물공장에서 대량배출된 트리피드가 입을 미처 도려내지 못한채 말뚝을 뽑고 길거리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자 장님이 된 사람들은 트리피드의 촉수에 잡혀 차례차례 희생되어 갔다.

주인공 윌리엄·메이슨은 流星雨의 밤에 공교롭게도 눈에 붕대를 두르고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난을 면한 사람이었다. 잠에서 깨어나 붕대를 풀은 그의 눈에는 아비규환의 거리로 둔갑한 런던이 비쳤다.

그는 한동안 발걸이 가는데로 시가지를 방황하다가 한 골목에서 장님의 남자에게 붙잡혀 시달리고 있던 눈이 보이는 여성을 구출해낸다. 그녀는 조세라·플레인이라고 했다. 그녀는 문제의 밤에 술에 취해 깊은 잠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난을 면한 것이었다.

교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메이슨은 거기서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바뀐 사실을 발견한다. 가까운 공장에서 빠져나온 트리피드가 가족을 모

조리 독침으로 살해해 버린 것이었다.

허겁지겁 시내로 되돌아온 두 사람은 파멸되어가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밤중에 대학의 유리창에 불빛이 보였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이 그곳을 찾아가보니 거기에 재액을 면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끼어들어보니 모여있는 사람수는 모두 35명으로 大領이라는 지도자가 집회를 열고 되도록 빨리 모두 자활할 수 있는 시골로 소개하자고 제안한다.

그날밤 일행은 장님이 된 대중을 구출하라고 주장하는 그룹의 습격을 받았다. 그들은 멀지 않아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구조단이 올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한줌의 눈이 보이는 리더를 받들고 자기네들의 시중을 들 수 있는 정상인을 약탈하려는 참이었다.

이 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메이슨과 조세라는 빨뿔이 헤어지고 만다.

메이슨은 그들에게 붙잡혀 수십명의 장님들의 시중을 들게 됐다.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곤해도 의지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는 장님들을 뺨겨쳐 버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러한 딜레마도 장님들을 휩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마침표가 찍히고 만다. 다시 자유의 몸이 된 메이슨은 조세라의 행방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퍼뜩 그는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말을

생각해내 <사세크스의 丘陵지대에 있는 농가>로 향한다. 도중에 트리피드의 습격을 받고 고아가 된 소녀 수잔을 구해주면서 메이슨은 간신히 그 농가를 찾아낸다.

그러나 그곳에는 런던과 같은 도회지 보다 훨씬 많은 트리피드가 판치고 있었다. 조세라는 의지하고 있던 농가와 가족의 절반을 잃고 이제는 트리피드와의 싸움이 시급한 일과가 되고 있었다.

놀랍게도 트리피드들은 보행하는 일뿐 아니라 상체부에 매달려 있는 촉모로 몸을 두들겨 음성 에 의한 일종의 회화를 주고 받고 있었다.

메이슨 일행이 들어있는 농가가 마치 최종목표인양 수백의 트리피드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메이슨쪽도 반격한다. 화염방사기, 전기을 타리등을 동원해 가면서 그러나 숫자상 메이슨 쪽이 열세에 놓여 있었다.

어느날 상공에 헬리콥터가 나타난다. 수잔의 機嚮로 위치를 알고 내려온 헬리콥터에는 어림쇼, 대학에서 집단생활을 하던 大領의 동료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트리피드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외딴섬으로 건너가 역습의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더 이상 이 농가에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메이슨은 전략적 후퇴로 나서서 그들과 합류하고 트리피드를 멸종시키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를 결심한다.

## 작 가 와 작 품

존·원담은 1903년 영국에서 태어나 1969년 세상을 떠난다. 1930년대의 스페이스 오페라가 한창이었던 무렵부터 SF작품을 쓰기 시작 1949년에 「트리피드의 날」로 제1선SF 작가로 부각됐다.

그후 「海龍이 깨어나다」, 「번데기」 그리고 그의 베번계 작품인 「저주받은 마을」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마을을 24시간 최면상태로 만들고

그 동안 마을의 수태가능한 모든 여성을 꺾죽같이 임신시키고 떠나는 일종의 침략SF등을 포함하여 장편 10권, 단편집 7권이 있다.

원담이 이러한 침략, 인류파멸SF로 평가받고 있는 이면에는 극한상황을 묘사하는 그의 명쾌한 문장표현도 그러려니와 <진화의 한 단계로서의 인류>를 못받고 있는 점이 중시되고 있다.